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자욱 못 잊어 대지는 설레인다

협동벌에 높뛰는 김정일애국주의의 숨결

이 땅 어디서나 사회주의농촌체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갈 혁명적의지가 새차게 맥차고 있다.

김백기전투로 들끓는 협동벌에 가면 아버지장군의 유훈을 받들어 거이머는 문제, 식량문제해결에서 결정적전환을 안아올 농업근로자들의 총성의 열도를 느낄 수 있다. 어느 공장, 기업소, 어느 일터에 둘러보아도 농사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자기들의 성실한 땀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진정을 헤아릴 수 있다.

올해의 첫 대회로 전국농업부문보장대회를 마련한 당의 의도를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사회주의협동벌마다에 꽃피워가려는 우리 인민의 열렬한 지향은 김정일애국주의의 성스러운 부름에 실려 이 땅에 울려 퍼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금이야말로 김정일동지의 슬하에서 혁명을 배운 우리가 그 어느때보다도 절연히 분발해나서야 할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시기입니다.》

지금도 아득히 뻗어간 규격모양들을 바라보노라면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을 실현하신 아버지장군의 헌신의 로고가 여러와 가슴에 새겨져 있다.

인민의 마음속에 토지정리의 포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김이 새겨져 있는 대백리의 새벽에 대한 일화화 승업한 격정속에 돌이켜본다.

주체 87(1998)년 5월의 어느 새벽 전연지대의 농촌길로 먼지가 보얗게 오른 여대원의 승용차가 달리고 있었다.

일행이 도착하는 논밭에 이르렀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갑자기 차를 세우게 하시었다.

그이를 모시고 전진길을 달리던 일군

들은 군사작전과 관련한 중대한 말씀이 게실것 같은 예감을 안고 장군님 두리에 모여섰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기저기 널려져있는 뺨기농들을 가리키시며 군대와 인민이 총동원되어 강원도의 토지를 정리하여야 하겠다고 이야기 하시었다.

그때쯤 적들의 새 전진도발책동으로 하여 정세는 초진장상태였으니 일군들의 놀라움은 참으로 컸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원도로 지정되는 자신께서 이미 생각해온 문제이고 확고한 결심이라고, 이제는 토지를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힘있게 선언하시었다.

격정과 흥분의 파도가 일군들의 온몸을 휩쓸었다. 그 어느때보다도 정세가 긴장하고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문제가 첨예하게 나서고있던 때에 대규모로 지정되는 파강한 작전을 펼치시어 이 땅에 황금나락이 물결치게 하시려는 아버지장군님,

선군혁명도사에 길이 빛날 대규모로 지정되는 역사적인 서막은 이렇게 찬이 슬러리는 전진길, 대백리의 새벽길에서 열리었다.

땅의 주인은 다름아닌 농장원들 자신이며 그들의 준비정도에 따라 사회주의대지의 미화가 담보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농촌체제를 애국의 보루로 튼튼히 다지도록 하는데서 제대원사들이 핵심역량이 되도록 마음쓰신 우리 장군님의 헌신의 로고는 력사의 땅 대동만에도 뜨겁게 여겨졌다.

대동만을 찾으면서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수많은 제대원군들로 군의 농촌전진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도록 하여주시고 우리 장군님,

감자농사를 대대적으로 하자면 로력이 얼마나 한다고 해서 더 다양한 온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그 손길에 아예 제대원사들이 초급일군, 초급간사, 기계화초병들로 여럿하게 자랄수

있었다. 제대원군들을 사회주의농촌전진지를 튼튼히 다지는 제일기수로 내세우시려는 절세위인들의 헌신의 로고속에 수많은 제대원사들이 선군의 대지에 뿌리를 박고 당의 농업혁명방침판철의 앞장에 서게 되었다.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온 나라의 농장벌을 찾고찾으시던 우리 장군님의 헌신의 갈피마다에는 협동농장들사이에 사회주의경쟁의 불바람을 더욱 새차게 일으켜주시던 잊지 못할 이야기도 새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찾으신지 몇해전인 것은 일이다.

동해지역에 위치한 이곳 농장은 서해포항지대의 이름난 농장들에 비해 불리한 조건들이 많았다. 하기에 농장에서서 해지구의 농장들과 경쟁을 하겠다고 결의해나섰을 때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그러면 동해지구 협동농장들이 서해지구 협동농장들을 공격하는셈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적극 고무해주시었다. 그리고서는 주관적요망만 가지고는 농사를 잘 지을수 없다고 하시며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신심을 잃을새라, 주저않을새라 결심을 이끌어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세심한 손길에 의하여 끝끝내 농장에서선 풍작을 이룩할수 있었다. 그들의 성과를 누구보다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 이곳을 또다시 찾으시어 불굴의 정신력으로 좋은 작황을 마련한 이들의 수고를 헤아려보시며 동해안농사에서 적이 창조되었다고,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동해안농사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그리고 만족해하시었다.

그분이 아니다.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숨결은 경외곡 《산울림》이 오늘의 빛나는 현실로 되게 하신 평도의 나날에도 이어져 있다. 사회주의농촌으로 떠나는

제대원사들을 위해 평양전학을 조직하도록 해주시며 취해주시신 다신한 은정에도, 받아안은 사랑이 너무 크고 고마와 삼가 올린 그들의 편지를 보시고 보내주시신 친필서한에도 새겨져있었다.

끝말한 제대원사들로 농촌핵심역량을 꾸려주시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규격모양으로 번듯하게 정리된 사회주의대지에 영원한 생명수를 안겨주시면서 품을 들여 문신 애국의 씨앗을 총사령관, 공농사, 두벌농사, 과학농사로 만발하게 꽃피워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어주시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업적을 어찌 천만년세월이 흐를수록 잊을수 있으리라.

하기에 사회주의대지의 자람은 선군시대의 최화한 선경에도 소중히 담겨져 있게 된다.

감자농사의 위대한 전진의 력사를 말해주는 대동만의 감자포항, 대규모규격모양으로 번듯하게 정리되어 옛날이주들이 아무리 토지문서를 들고와서 제방을 찾았다고 하여도 도저히 찾을수 없게 된 한드레벨의 지평선, 현대적인 파수벽이 무연하게 펼쳐져있고 손색없이 꾸러진 수백종의 살림집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앉은 대동강수출합농장의 파수풍경...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대지에 수놓으신 우리 장군님의 애국적이었다. 후손만대의 번영의 제비인 사회주의대지에 어린 아버지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었다.

사회주의협동벌에 풍요한 오곡백과를 안아올 열정에 넘친 천만의 심장마다에 김정일애국주의가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평도따라 울헤 농사를 본때있게 지어 많이 제신 일곡 고지를 기어이 정평하라는 우리 인민의 기상이 사회주의대지에 비껴 흐른다. 구수한 낱알향기를 풍기는 풍요한 가을을 예고해주며.

언제나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계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전후 어느 한 농촌부락을 찾으신 고 하루밤을 보내신 다음날이었다. 부지런한 농민들도 아작은 단식도 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밖으로 나서시었다.

그곳 일군도 따라나섰다. 전날밤도 늦게까지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부락사람들이 잘살 방도를 의논해주시고 그이께서 이른새벽 이슬맺힌 풀밭을 헤치시고 향하신 곳은 높았다. 갈대의 설레임소리. 인기척에 놀란 물오리들의 푸덕덕소리...

어느덧 희즈마루 밝아오는 동녘 하늘을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눈을 한 바퀴 돌아보시고 하시었다. 비릿한 물냄새와 갈대내기가 물결을 띄우며 순간의 휴식도 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순간이나마 아침산책의 기회를 마련해드렸다는 생각으로 일군은 힘있게 노를 저어나갔다. 시간은 흘러 쫓아내는 순간 보배방으로 안겨왔다. 모두가 기쁨에 넘쳐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함께 눈을 돌이키신 일군은 격정에 눈시울을 적시었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의 류다른 아침산책은 농민들을 잘살게 하시려는 그이의 헌신과 로고의 시간이었구나.)

본사기자 백영미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농민들에게 저 트랙터를 다 보여 주셨는가, 농민들이 이것을 좋아한다면 그들을 일일이 물으시었다. 일군들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사일을 제일 잘 아는 사람도 농민이기에문에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강조 하시었다.

이른새벽 포전길을 걸으시며 농민들의 요구와 념원을 실현하시기 위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경건히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마다에는 그의 애의인 뜻을 받들어 갈 맹세가 불타올랐다.

본사기자 김인선

이른새벽 포전을 찾으신 사연

주체 88(1999)년 5월말 어느날 이른새벽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안변군 사정협동농장포전을 찾으시었다.

사실 그날 위대한 장군님의 일행은 전진시찰로 맞물려져있었다. 하지만 이곳 농장에 여러가지 트랙터들이 논밭을 갈고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클리마트 트랙터도 28hp 판대신 60hp 판을 올려놓아 마력을 높인것을 보시고 대단하다고, 늦는것과 부족하다고 파분히 치하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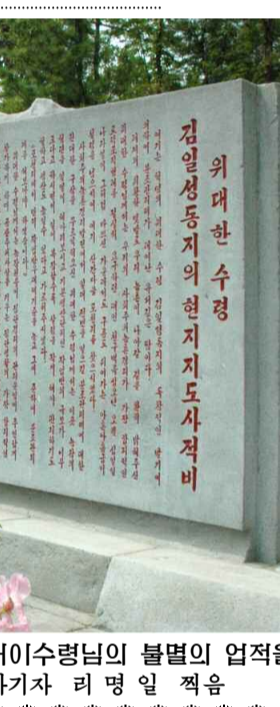
이러 다른 나라들에서 들 여은 트랙터들도 보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떤 트랙터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가를 료해하시었다. 우월함을 지적해주시었다.

본사기자 리금분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넓고 험한 산간마을에 오시어 분조관리제를 창조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회양군 포전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리명일



새로 생겨난 농촌풍경

어름에 농민들에게 팔아주면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판매원은 위대한 장군님께 여를 팔려는 농민들에게 팔아주면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판매원은 위대한 장군님께 여를 팔려는 농민들에게 팔아주면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판매원은 위대한 장군님께 여를 팔려는 농민들에게 팔아주면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판매원에게 동무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농촌상점판매원들은 농민들속에서 일하는 그들의 애로를 제때에 알아보고 해결해주어야 한다. 그야 농민들이 생활에서 걱정과 불편을 모르고 농사일에 모든 힘을 집중할수 있다. 때문에 판매원들은 매대만 지키고있을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집에도 찾아가고 바쁜 농사철에는 포전머리에도 나가 그들의 요구에 맞게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등봉사를 잘해보겠다고 다짐했으니 이등봉사를 본때있게 해보라고 거듭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상점을 다녀가신 후 이곳 농촌뿐아니라 온 나라 농촌들에서는 새로운 풍경이 생겨나게 되었다.

모내기철과 김매기철을 비롯한 바쁜 농사철엔 말뚝과 마을의 길가에 이동식대대가 차려지고 이른아침에는 마을마다 이동식대차가 다니며 식료품을 공급해주는 이채로운 풍경이었다.

농촌마을에 새로 생겨난 풍경!

정령 그것은 언제나 인민을 위하시며 그들을 위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량없는 인민사랑이 펼친 또 하나의 사회주의농촌의 새 풍경이었다.

본사기자 정소학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물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습니다.》

주체 56(1967)년 7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북청군의 한 리상점을 물소 찾아 주시었다.

건설회담대에 이르시어 낫과 톱, 마치를 비롯한 농기구와 철제물들의 가지수와 질에 대하여 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장담대에 이르시어 판매원에게 질문을 보치고 말씀하시었다.

이윽고 판매원이 가져온 농민모를 한동안 살펴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방원료를 가지고 농민모를 잘 만들었다고,

박봉주 총리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정형 현지료해

박봉주총리는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총리께서는 대동강기슭에 현대적으로 일떠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겨주시는 사랑의 요람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건설에 떨쳐나선 인민군인들은 원아들을 돌보아주시는 위대한 후대사랑의 결정체로, 세상에 없는 멋쟁이공간으로 완공할 불타는 열정을 안고 확고한 침삼을 박은 대로부터 10여일 남짓한 기간에 기초공사에 돌입하였다.

총리는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도에 대한 해설을 들은 다음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자체보장실태를 료해하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안겨주시신 우리 나라의 건설교육자부대의 열의를 새로이 건설속도창조로 빛내고있는 인민군인들을 고무하였다.

현지에서 시공일정에 맞게 건설 및 내부마감작업과 설비, 비품 등을 제때에 보장하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기초식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신 1돐 기념보고회 진행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기초식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신 1돐 기념보고회가 7일에 진행되었다.

보고회에는 조영철식료일용공업상, 김수철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판매부서 일군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 편관단위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초급당비서 최동현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터전을 잡아주시고 일떠세워주시신 공장 어버이장군님의 웅대한 구상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 세심한 보살핌에 의하여 현대적인 기초식품생산기지로 훌륭히 개건된 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절세위인들의 후대사랑, 미래 사랑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만경대 학생소년공전 교직원들의 쫓기모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만경대학생소년공전 교직원들의 쫓기모임이 7일에 진행되었다.

김진하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공전 일군들과 교직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초급당비서 리군철의 보고에 이어 총장 염운학, 과장 염영철, 노동자 김영희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편을 받드시어 미래사랑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만경대학생소년공전을 찾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제기가 어려웠다는 공전 한 만경대학생소년공전 소조원들의 실태를 료해하시고 소조원들의 파외 활동모습도 보이주시며 그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공전관리운영과 인재육성사업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경대학생소년공전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한데 대한 대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대책들까지 일일이 세워주시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왕들인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재능의 나래를 펼치며 희망을 꽃피우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혁명전통교양에 큰 힘을

회령시 대덕리당위원회에서 혁명전통교양에 큰 힘을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시하게 될것이라고 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철사업계획에 따라 혁명혁명사적관람관을 실시하기 위해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신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의

을 높여 혁명전통교양을

을 높여 혁명전통교양을

을 높여 혁명전통교양을

을 높여 혁명전통교양을

로동통신원 박희옥

로동통신원 박희옥

로동통신원 박희옥

로동통신원 박희옥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본태를 본받아 자랑찬 위훈을 수놓아간다

위성과 과학자 거리건설장에서

청년전위들의 대답은 하나 - 《알았습니다!》

오직 《알았습니다!》라는 병사의 대답으로 높이 세운 현장 지휘부적인 공적기록을 무조건 이겼던 수놓아나가는 위훈의 창조자들속에는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있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 같이 떨쳐일어나 돌볼을 가리지 않고 기어올라 해내고야마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지도국에 맡겨진 공사과제는 은하과학자거리건설장에 비

속도전청년 돌격대지도국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불가능이란 말자체를 모르는 청년전위들의 기개가 제2리단 돌격대원들이 많은 타악소건설장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불이 번쩍 나게 기초굴착 및 성토과제를 해체하고 팔조공사에 진입해 돌격대원들이 무는 타임전투와 동시에 블록생산전투를 개시하였다. 순천지구에 있는 은석장역에 전투진지가 정해지고 로력이 긴장한 속에서도 부소대장 한승성동무를 비롯한 5대대와 2대대의 30여명의 돌격대원들이 전투과제를 차지하였다.

블록생산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다. 돌격대원들은 손목힘이 빠지면 맛들이손잡이에 맨 공을 목에 걸고서라도 힘없이 혼석과 세멘트를 날렸다. 혼합물을 이기는 삽날마다에서, 다짐봉을 틀어다 그레드 얼마후에 스키프가 움직이고 진동다짐기의 동음이 울렸다. 총막우에 올라선 강요돌격대원은 한순간 가슴이 뭉클하였다. 대대장 김정식동무를 비롯한 돌격대원들이 비속에서 다시 작업을 시작했었다. 공적기록에 따르는 4층총막공사를 한 시간이라도 앞당기려는 그 불같은 마음들이 짧은 휴식시간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던것이었다.

비발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자 대대장이 자기 비옷을 벗어 방금 흰 총막우를 덮었다. 돌격대원들이 저지마다 비옷을 벗고 나중에는 작업복까지 벗어 점차 늘어나는 한구간한구간의 총막을 가리워나갔다.

하루전투계획, 그것은 당앞에 다진 청년전위들의 심장의 맹세였다.

19호동살림집건설을 맡은 제10리단의 돌격대원들이 4층총막공사를 다그치던 어느 날이었다. 초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좀처럼 멎지 않았다. 저녁식사시간을 리용하여

돌격대원들의 옷을 같이입던 러단의 지휘관들은 비가 뜰때까지 현장에서의 휴식을 선포하였다. 밀렸던 잠을 보충하려는지 식사를 끝마친 3대대의 돌격대원들이 하나들 자리를 떴다. 그런데 얼마후에 스키프가 움직이고 진동다짐기의 동음이 울렸다. 총막우에 올라선 강요돌격대원은 한순간 가슴이 뭉클하였다. 대대장 김정식동무를 비롯한 돌격대원들이 비속에서 다시 작업을 시작했었다. 공적기록에 따르는 4층총막공사를 한 시간이라도 앞당기려는 그 불같은 마음들이 짧은 휴식시간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던것이었다.

비발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자 대대장이 자기 비옷을 벗어 방금 흰 총막우를 덮었다. 돌격대원들이 저지마다 비옷을 벗고 나중에는 작업복까지 벗어 점차 늘어나는 한구간한구간의 총막을 가리워나갔다.

그들만이 아닌 은 러단의 돌격대원도모두 이렇게 타임전투를 벌여 새벽이슬이 밝아올때는 기어이 4층총막우에 승리의 붉은기를 꽂고야말았다.

《알았습니다!》, 오직 이 하나의 대답밖에 모르는 청년돌격대원들의 배짱과 승기는 자연에너트기어연구소건설장에서 놀라운 위훈을 낳았다.

살림집공사에 비하여 2배나 되는 청년전위들의 기개가 제2리단 돌격대원들이 많은 타악소건설장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불이 번쩍 나게 기초굴착 및 성토과제를 해체하고 팔조공사에 진입해 돌격대원들이 무는 타임전투와 동시에 블록생산전투를 개시하였다. 순천지구에 있는 은석장역에 전투진지가 정해지고 로력이 긴장한 속에서도 부소대장 한승성동무를 비롯한 5대대와 2대대의 30여명의 돌격대원들이 전투과제를 차지하였다.

전문화의 덕을 크게 본다

초기에만 하여도 편양 대외건설자양사업소가 맡은 11호동살림집공사실적은 시원치 못했다. 역량편성이 새롭게 되었다. 직장담당로 청년가공과 조립, 휘틀설치, 혼합물운반 및 타임 등 공적기록에 따르는 개개의 작업들이 전문화되었다.

이것이 뚜렷한 결실을 안아왔다. 한개 층의 살림집조를 세우는데 처음에는 한

야간전의 효과성을 높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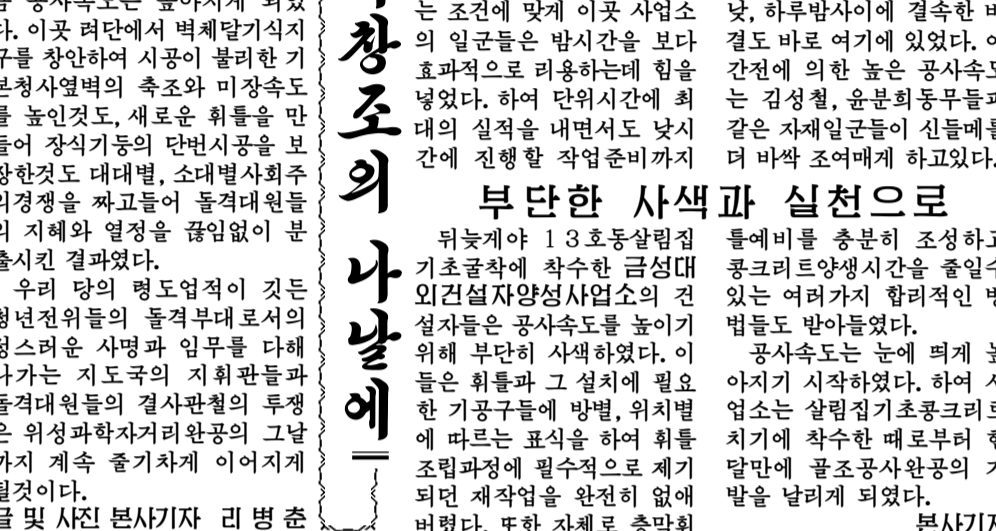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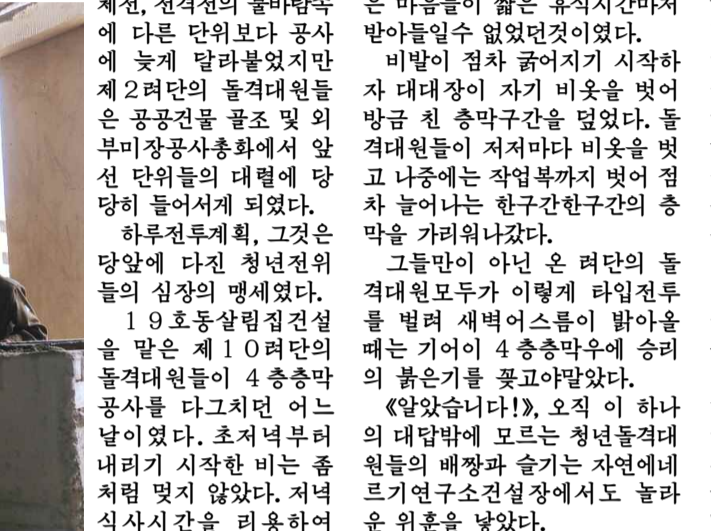
대성대외건설자양사업소라고 하면 야간전을 잘하는 단위로 알려져 있다. 낮 시간이면 다른 단위들에서 지어다 건설기계를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이곳 사업소의 일군들은 밤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힘을 넣었다. 하여 단위시간에 최대의 실적을 내면서도 낮 시간엔 비탈 작업준비까지

부단한 사색과 실천으로

뒤늦게야 13호동살림집 기초굴착에 착수한 금석대외건설자양사업소의 건설자들은 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사색하였다. 이들은 휘틀과 그 설치에 필요한 기공구들에 방법, 위치별에 따르는 표식을 하여 휘틀조립과정에 필수조건으로 제기된 제작법을 완전히 없애 버렸다. 또한 자재로 총막휘틀에 비를 충분히 조성하고 콘크리트양생기를 줄임으로써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내었다.

공사속도는 눈에 띄게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하여 사업소는 살림집시공콘크리트 기기에 착수한 때로부터 한 달만에 골조공사완공의 기말을 날리게 되었다.

본사기자



단위의 전투력은 무엇에 비례하는가

상하수도 건설사업소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원리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500㎡짜리 물랑건설결속, 건축면적이 280㎡인 변전소의 골조 및 미장공사완공, 1080㎡의 오수관로공사 결속, 5월말에 진행된 판리국적인 미장경기에서 단연 1등...

불과 한개 직장의 15명의 로력으로 수행한 작업량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치이다.

하디면 평양시건설관리국 상하수도건설사업소가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3~4배이상의 로력을 가지고 나온 판리국이며 다른 사업소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며 앞서나가는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얼마전 변전소지붕공사용목재나르기가 한창인 전투장에서 우리와 만난 사업소 기사장 안성철동무는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 2직장 동무들이 언제나 이렇게 뛰어나고 있습니다.》

2~3대의 목재를 데고 땅을 철철 울리며 달리는 로동자들속에서 남달리 다부지게 생긴 한 사람을 가리키며 기사장은 그가 신급철직장장이라고 알려주었다. 모든 일에서 언제나 직장장

이처럼 열정을 메니 로동자들도 모두가 성수가 나고 그렇게 한마음한뜻으로 똘치니 공사실적은 오르다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공사기 시작된 첫날부터 전투현장을 파지를 차지한 책임일군들인 리상국, 안성철동무들이었다. 낮이면 로동자들과 일도 함께 하며 그들을 맡았이 고무배 주었고 저녁엔 사업소와의 연락을 위해 후방사업부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갔다.

지난 5월말 판리국적인 사업소별미장경기가 진행될 때에도 일군들의 마음은 이렇듯 어느 한순간도 발판을 비우지 않는 로동자들 곁에 가있었다. 그것은 그대로 힘이 되었고 한타는 사업소들의 미장공들을 위해 펄고 선함으로 달려진 미장경기엔 끝없는 혁신적 성과로 이어졌었다. ...

우리는 취재수첩을 덮으며 생각했다.

한 단위의 전투력, 그것은 결코 인원의 많고적음에 따르지 않는다. 경에 하는 회고사업동무들의 명령관들을 위한 이 보람찬 전투장에서 우리의 혁명군대에서와 같이 일군으로부터 마지막 로동자가 이르기까지 일심동체가 되어 분발하던 산수적으로서는 계산할수 없는 무한대의 힘이 솟아나오는것이다.

본사기자

직맹들 격대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군민들중작업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여 대성공을 힘있게 달성시키자!》

우리는 지금 직맹돌격대의 전투기록장을 펼친다.

총연장이 640m의 1~3호 우수양 및 2호, 3호 우수개거공사 진행, 1만 1000여㎡의 구획조성과 4만여㎡의 살림집주변정리, 방대한 량은 인정제방공사 85%제성 등...

불과 한달 남짓한 동안에 이룩한 성과이다.

지난 5월 중순, 은정전체방공사에 진입한 돌격대원들이 로명철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그날 말은 구간을 반달로 정리하였다.

어찌 이토록 빨리, 어찌 이토록 힘 든 모퉁이마다에 주저없이 몸을 내며 돌격대원들을 위훈창조로 돌격해온 평안북도대대대대장 리성일동무, 하루 15시간이상 경계선등을 진행하여 목이 딱딱이 말하기조차 힘들 때에도 다음날이면 또다시 미터 크를 틀어잡고 이상적인 포성을 높이 올린 김정식, 전선화, 김춘애, 원종남동무들...

안공의 날을 향하여 구보로만 내달리려는 돌격대원들의 애국의 마음이 곧 높은 공사실적으로 이어지고있다.

본사기자

새 공법도입에서

분화 건설려 단에서

4400여㎡의 연건축면적을 가진 현대적인 봉사전문인원형건물, 이것은 덩치 큰 한개 호들의 살림집을 새로 일떠세우는것에 찍지 않는 실로 간단치 않은 공사과제였다.

이런 때 리단장 박영옥, 참모장 정정남동무들이 휘틀을 쓰지 않고도 원형기둥을 세울수 있는 착상을 내놓았다. 기둥위에 있는 근조립을 한 다음 휘틀대신 원통식콘크리트부재를 세우고 그속에 혼합물을 다져넣는 방법으로 시공을 하자는것이였다. 대담하고 혁신적인 방안은 즉시 시공에 도입되었다.

산하공장에서 2.5m 길이의 원통식콘크리트부재를 생산

새 공법도입에서

분화 건설려 단에서

4400여㎡의 연건축면적을 가진 현대적인 봉사전문인원형건물, 이것은 덩치 큰 한개 호들의 살림집을 새로 일떠세우는것에 찍지 않는 실로 간단치 않은 공사과제였다.

이런 때 리단장 박영옥, 참모장 정정남동무들이 휘틀을 쓰지 않고도 원형기둥을 세울수 있는 착상을 내놓았다. 기둥위에 있는 근조립을 한 다음 휘틀대신 원통식콘크리트부재를 세우고 그속에 혼합물을 다져넣는 방법으로 시공을 하자는것이였다. 대담하고 혁신적인 방안은 즉시 시공에 도입되었다.

산하공장에서 2.5m 길이의 원통식콘크리트부재를 생산

우리 나라 박진향선수 2014년 아시아 청년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 쟁취

우리 나라의 박진향선수가 2014년 아시아청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지난 5일 몽골의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선수권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이란, 일본을 비롯한 10여개 나라와 지역의 남녀 선수 230여명이 참가하고있다.

박진향선수는 여자자유형 44kg급에선 중국이 인디아선수, 준결승경기에서 까자흐스탄 선수를 이기고 결승경기에서 진출하였다. 6일 필승의 신승안과 결승경기에서 출전 한 그는 경기시작부터 자기의 특기를 잘 살려 우즈베키스탄 선수를 10: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물리치고 제1위를 쟁취하였다.

한편 안승경선수는 여자자유형 51kg급경기에서, 권은남 선수는 남자고정형 50kg급경기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하였다.

다음주에 진행될 보천보해불상체육경기대회 1급 경기들

다음주에 보천보해불상체육경기대회 여러 종목의 1급 경기들이 진행된다.

축구 1차경기일정은 다음과 같다.

9일(남자) 기관차:소백수
25: 판모봉 선 봉:월미도
(여자) 4.25: 풍악산 리명수:월미도
(여자) 4.25: 풍악산 리명수:소백수
(여자) 4.25: 풍악산 리명수:판모봉 선 봉:월미도
10일(남자) 풍악산:소백수 리명수:소백수
(여자) 4.25: 판모봉 선 봉:월미도
11일(남자) 평양:판모봉 선 봉:월미도
(여자) 4.25: 판모봉 선 봉:월미도

영국과 도이칠란드에 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 출발

영국의 런던에서 진행되는 적십자단체들의 국제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리청회부위원장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이 7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이들 도이칠란트를 방문하는 백호호정행부위원장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이 7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인디에서 진행되는 제12차 국제화련맹세계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리청회부위원장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이 7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메히로로동당대표단 귀국 리우라 홀리메다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메히로로동당대표단 귀국 리우라 홀리메다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메

이 오늘까지 계속 앞서나가도록 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이들이 평양전체단식발전조건 설정을 과학연구의 활무대로 정하고 현장으로 달려나온것은 지난해 3월 중순이였다.

자기들이 연구개발한 새형의 침착기에 대한 초보적인 성능시험을 거친 단계에서 이들은 지난해 1월말 청천강계단식발전조건설착공에 대한 소식을 신문과 방송으로 접하게 되었다.

어비장공정까지 생애의 마지막시까지 위대한 애국현신의 자욱을 새겨가신 력사의 땅으로 달려가 이학들의 본분을 다할것을 결심한 이들은 연구소 당조직과 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속에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두달후 우안전체착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는 회전9호발전조건설착공으로 달려

청천강반이 자랑하는 《박사일행》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 실장 김수찬, 연구사 변철영동무들

기에 진입하면서 암석굴착속도를 최대한 높여야 하였는데 작업이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다.

김수찬, 변철영동무들은 기어이 암석굴착에서 돌파구를 열어 준 것일념으로 늦게 발을 이어 침착기의 성능제고를 위한 고심 어린 탐구를 거듭하였다.

이들의 노력은 날이 갈수록 새 설비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게 하였다. 관공도가 빠르게 구명된 크기가 크고 길이가 긴 특징을 가진 이 침착기는 화공품과 로력소비를 종전보다

30%이상 줄이면서도 발표효율이 높아 이미 투입된 침착기 10대와 맞먹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였다.

이처럼 설비가 가랑는 곳마다에서 천연바위들이 붕괴 통제로 드러내면서 공사의 돌파구가 열렸다.

하지만 결린 문제도 적지 않았는데도 이들을 위한 노력은 물론이요 본격적으로 추진된 좌안연체와 발전기설착에서도 좋은 결실을 안아오게 하였다.

올해 또다시 건설장으로 달려나온 이들은 년초의 강구위에서 한개 대대비행으로만 추진하던 리단의 발전기설착실적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웠다. 특히 좌안연체공사를 본격적인 타입체결전에 끝내야 하는 긴박한 조건에 맞게 할수 있는 침입머리는 물론 정적으로 이동전개까지 돌격대원들과 함께 사생결단의 의지로 단연 설비가통을 도저히 생각할수 없었다.

이들은 그때마다 물러서지 않고 연구소와 해당 단위를 수없이 오가며 부분품해결을 위하여 아글라글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에 평양리단에서 우안연체와 쉬수구, 물고기길 등의 공사를 빠른 속도로 추진시킨 건설적으로 제일 앞서나가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본사기자 류기철

란 전의 보배 기술자

덕성탄광 2경에는 탄부들속에서 《우리 보전공이비》, 《보배기술자》로 불리우는 심우춘동무가 있다.

지난 40여년동안 광막장비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고급기능공인 그에게는 높고 다하는 수점이 있다.

수많은 막장설비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그가 바치는 깨끗한 땀방울과 헌신의 기록장파도 같은것이다.

석관생산에서 벗어나는 안월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열정

정주시 흑룡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열정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열정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열정

유해에도 인민군대에 입대

유해에도 인민군대에 입대

유해에도 인민군대에 입대

유해에도 인민군대에 입대

유해에도 인민군대에 입대

유해에도 인민군대에 입대

유해에도 인민군대에 입대

유해에도 인민군대에 입대

유해에도 인민군대에 입대

유해에도 인민군대에 입대

유해에도 인민군대에 입대

유해에도 인민군대에 입대

반공화국대결소동은 멸망을 재촉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망동

《통일》의 보자기로 감싼 체제대결, 북침전쟁론

재앙을 몰아오는 분별없는 처사

최근 남조선피괴들이 그 무슨 《통일》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를새없이 떠들고있다. 피괴피괴는 지어 저들이 《통일을 주도》해야 한다는 가소로운 수작까지 늘어 놓으며 여론을 어지럽히고있다. 조선반도의 통일은 그 무슨 《자유시장경제를 전제》로 하여 저들이 주도하는 통일이어야 하며 현재의 딱 막힌 북남관계는 오히려 저들의 주도하에 《신뢰를 립각한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수 있는 기회로 된다는것이 피괴피괴의 낙두리이다.

대결유형화자들은 나중에는 가소롭게도 조선반도가 어느때쯤에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되어있을것이라는 허망한 《판관론》까지 내뿜고있다.

얼마전에는 피괴의교부 장관 윤병세가 남조선전체 외교대표들앞에서 그 누구의 《지속적인 도발》에도 불구하고 《신뢰프로세스》에 기초하여 통일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있다는 가솔베꾸기같은 소리를 늘어놓았다.

이아무리 저들의 반공적인 대결정책이 빛이남 북남관계의 파괴적현실을 외면하고 내외여론의 눈과 귀를 가리우며 반민주적인 체제통일담상을 실현하기 위한 간혹한 오설이 아닐수 없다.

민심과 민중의 저주의 대상으로 되어 제명을 다 쓴 극악한 살인마집단, 통일이라는 신성한 말을 이미 웅변 체면도 자그도 상실한지 이미 오랜 반역의 무리들이 통일을 감히 《주도》한다고 떠들어 대고있는것은 그야말로 가마속의 삶은 소대거리도 양친대소할 피괴극이다.

조국통일은 누가 주도하고 누가 풀러가는 성의의 문제가 아니다.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건 민족적위업이다. 그를 위해서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제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선 현방체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피괴들이 떠드는 《통일》은 과연 어떤 통일인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집어삼킬 욕심이 어린 체제통일이다. 그들이 광고하는 《신뢰프로세스》라는것만 놓고보아도 우리를 변화시켜 체제통일담상을 실현해 보겠다는것이며 《통일의 청사진》이라고 극구 추어올리는 《드레드넨선언》이라는것 역시 먹고 먹히는 도이월란드식통일을 본받겠다는 것이다.

외세를 등에 업고 일방이 타방을 먹는 체제통일은 결코 통일이 아니며 오히려 민족적대난방에 가져올것이 없다.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체제통일이 초래할것은 전쟁뿐이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올해에도 우리는 조국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이며 실천적의의가 큰 중대제안들을 내놓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최대의 성의와 야망을 보였다. 그것이 옹당한 결실을 보지 못한것은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린 피괴피괴당때문이었다.

박근혜는 오바마를 남조선에 끌어들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위한 기본 조약》을 체결하였다고 그에 대해 상진과 전제일치를 보았다고 광고하였다. 그보다 앞서 도이월란드행각기간에는 통일된 도이월란드는 《부러움의 대상》이며 저들이 《가야 할 목표》라고 떠들었다. 박근혜가 남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입방아질을 하며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을 역설한것은 팔수에 딱 떨어지지는 그의 동족대결정신, 체제통일야망을 그대로 드러내보이고있다.

박근혜가 말끝마다 《신뢰》니, 《통일성회복》이니 하고 떠들고있지만 실지로 추구하고있는것이 북침전쟁도발이라는것은 그가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강력한 국

방력량》이라고 기명을 토한것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이러한 망동들이 모처럼 마비되었던 좋은 분위기를 망쳐먹고 북남관계를 또다시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간 원인으로 되었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그런데도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며 허무맹랑하게 《통일》을 운운하는 피괴피괴당이아말로 천하에 뻔뻔스럽게 그지없는 파멸지한의 무리이다.

나라가 분열되어 반세기도 훨씬 지나온 70년이 되어오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대결이 지속되는것은 가슴아픈데 피괴피괴당은 통일이라는 신성한 말을 도용하며 동족사이의 전쟁을 몰아오는 체제통일을 선동하고있다. 이것은 겨레의 간절한 통일원령에 대한 악랄한 우롱이고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지금 피괴들은 《통일기반을 구축》한다, 《통일시대를 준비》한다. 어찌나 허풍분주랑을 피우고있다. 그 무슨 《통일준비위원회》라는것까지 만들어놓고 《통일》에 대한 각계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떠들어치고있다. 이 광대놀음의 밑바탕에는 허황하기 짝이 없는 《금문사태》론이 깔려있다.

박근혜당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려사의 쓰레기통에 치박힌 《금문사태》론의 골짜기라는 문서모따라를 아직도 뒤적거리고있는것은 정말 가소롭기 그지없다. 총체적붕괴와 금문사태에 직면하고있는 곳이 과연 어디인데 그때부터 허튼 나팔인가.

피괴들이 그 무슨 《통일》에 대해 요란히 떠드는것은 북침전쟁도발기도의 뚜렷한 발로이다.

《트론한 안보태세》니, 《동맹강화》니 뭐니 하면서 미제침략군부력을 끌어들이며 화악내풍기는 전쟁연습에 미쳐들아가는 피괴피괴당의 망동은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피괴피괴들은 2월달부터 수개월동안이나 미국과 함께 《키 리졸브》니, 《독수리》니,

《맥스 쉐더》니 하는 북침전쟁연습을 목지와 바다, 공중에서 력대 최대규모로 벌려놓았는가 하면 우리의 자위적조직들에 대해 무턱대고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며 걸고들고 《보복》과 《응징》을 운운하면서 정세를 전쟁점점으로 몰아가고있다. 한편 미국상정에게 전직작전통제전환체제연기를 예결하고 위협천한 한 북침전쟁각본인 극지도발공동대비계획과 맞춤형억제전략의 실현을 위한 공동결약을 일층 강화하고있다.

이더 그뿐만이.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고야내며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피괴피괴당은 통일이라는 신성한 말을 도용하며 동족사이의 전쟁을 몰아오는 체제통일을 선동하고있다. 이것은 겨레의 간절한 통일원령에 대한 악랄한 우롱이고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이 모든것은 피괴피괴당이 말하는 《통일》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치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의 힘을 빌어 이어서 북침전쟁의 불을 지피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박근혜당과 같은 추악한 매국노, 대결망꾸리라는 이 세상이 없다.

집권하여 1년이 훨씬 넘도록 북남관계에서 아무 실적도 없어 궁지에 몰린 박근혜가 동판자같이 《통일》을 꿰쳐대며 저들의 몸값을 올려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얻을것은 온 겨레를 비롯한 내외의 더 큰 규탄과 망신담에 불과하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박근혜《정권》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거세하게 타고르고있다.

박근혜의 반민주적, 반민족적정치는 여지없이 드러났으며 《새헌법》조차 침몰하듯 박근혜《정권》의 침몰과 박근혜에 대한 심판은 시간문제이다.

그런즉 피괴피괴당은 통일문제를 가지고 더이상 우리 민족과 세계여론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통일》이니 뭐니 하는 피괴들의 썩은 은룡 기만투쟁이니 그 어디서도 통할수 없다.

허영민

《맥스 쉐더》니 하는 북침전쟁연습을 목지와 바다, 공중에서 력대 최대규모로 벌려놓았는가 하면 우리의 자위적조직들에 대해 무턱대고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며 걸고들고 《보복》과 《응징》을 운운하면서 정세를 전쟁점점으로 몰아가고있다. 한편 미국상정에게 전직작전통제전환체제연기를 예결하고 위협천한 한 북침전쟁각본인 극지도발공동대비계획과 맞춤형억제전략의 실현을 위한 공동결약을 일층 강화하고있다.

이더 그뿐만이.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고야내며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피괴피괴당은 통일이라는 신성한 말을 도용하며 동족사이의 전쟁을 몰아오는 체제통일을 선동하고있다. 이것은 겨레의 간절한 통일원령에 대한 악랄한 우롱이고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이 모든것은 피괴피괴당이 말하는 《통일》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치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의 힘을 빌어 이어서 북침전쟁의 불을 지피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박근혜당과 같은 추악한 매국노, 대결망꾸리라는 이 세상이 없다.

집권하여 1년이 훨씬 넘도록 북남관계에서 아무 실적도 없어 궁지에 몰린 박근혜가 동판자같이 《통일》을 꿰쳐대며 저들의 몸값을 올려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얻을것은 온 겨레를 비롯한 내외의 더 큰 규탄과 망신담에 불과하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박근혜《정권》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거세하게 타고르고있다.

박근혜의 반민주적, 반민족적정치는 여지없이 드러났으며 《새헌법》조차 침몰하듯 박근혜《정권》의 침몰과 박근혜에 대한 심판은 시간문제이다.

그런즉 피괴피괴당은 통일문제를 가지고 더이상 우리 민족과 세계여론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통일》이니 뭐니 하는 피괴들의 썩은 은룡 기만투쟁이니 그 어디서도 통할수 없다.

허영민

단평

얼마전 《세누리당》의 이전

대표이며 박근혜를 적극 뒷받침하는 퇴물대오인 《7인회》성원 최병렬이 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현 집권자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청와대에 들어가더니 《사람이 짝 달라졌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장탄식을 늘어놓는것이다.

최병렬은 지금껏 박근혜에 대해 《홍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 뭐니 하며 잔뜩 추어올리느라 입에 침이 마를새없던 인물이다. 그러던차에 수작까지 늘어 놓는 소리를 했으니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일만도 하다. 그는 박근혜의 앞날이 걱정된다고, 정

후견인의 탄식

말 큰일났다고 연신 고개를 주저리던 끝

에 민심도 들어보고 소동도 해야 본인의 견강에도 좋을것이라는 충고까지 하였다. 늘그막에 느는건 설말과 잔소리뿐이라고 했지만 최병렬의 말을 그렇게만 볼수는 없다. 이제는 저들 《7인회》마저 무시하고 온통 독판치기에만 여념이 없는 박근혜의 처사가 얼마나 얄밟고 못마땅하게 느껴졌는지 후견인이 그런 쓰거운 소리를 내뿜었는가.

늘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외우던 박근혜는 정작 집권하자 민심의 목소리는 물론

론야랑과 지역

당패거리들

마져 완전히 무시한채 청와대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장관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독단과 전횡을 부리고있다. 그러나 이제는 최병렬과 같이 박근혜에게 손을 들어주었던자들마저 쓰꾸러온 나머지 얼굴을 붉히며 비난을 퍼붓고있는것이다.

최병렬이 아직은 그대로 미련이 남아있어 조언을 했다 하지만 이미 구부러질대로 구부러진 박근혜라는 고목은 절대로 곧이 수그러들지 않고, 교묘으로는 속병을 고치지 못하는 법이다.

조남수

로조란압에 항의하여

남조선의 건설로동조합 전남 동부지역기증기회소속 로조

원들이 업무중의 로조란압에 대해 2일 전라남도 러수

통성

지난해 10월 결성

된 로조는 기증기를 운전하는 로동자들에게 대한 로동시간과 휴식보장,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업무중의 협상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업무중은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로조직업자들을 해고하는것으로 대담하였으며 얼마전에는 직장을 폐쇄하고 로조원 15명을 해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로동자들의 생존권보장은 안중에 없이 로조파괴에만 피눈이 되어 날뛰는 업무중에 항의하여 로조원들은 철막을 올라가 통성투쟁을 벌리고있다. 건설로동조합은 전지역의 건설로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벌릴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까브로스의 천연가스에 눈독을 들이는 미국

미국이 까브로스에 눈독을 들이고있다.

얼마전 미국부대통령이 까브로스를 행차하였다. 그는 나라에 대해 저들이 걸린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현재 까브로스는 수십년간 그리스계인들이 살고있는 남부까브로스섬과 튀르키예계인들이 살고있는 북부까브로스섬로 나뉘어져있다.

까브로스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이 나라는 옛날부터 많은 나라들의 관심속에 있었다.

이 나라 주변에는 그리스와 튀르키예가 위치하고있다.

그러한 속에서 1970년대 그리스계의 우익반동들이 군사정변을 일으키자 튀르키예는 튀르키예계 주민들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북부령토를 점령하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후 튀르키예계 까브로스 주민공동체는 일방적으로 《북부까브로스튀르키예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결과 까브로스는

터 받은 천연가스는 유럽국가들에 있어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다.

로씨야는 세계적인 천연가스 수출국이다. 미국도 유럽도 로씨야의 덕을 단단히 보고있다.

이런 속에서 로씨야가 제재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로씨야에 제재를 대치하여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국가들이 로씨야에 대한 제재가 오히려 자국의 경제발전

에 장애가 된다고 하면서 미국의 제재에 합세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밝히고있다.

실례로 도이월란드정부는 미국에 추종하여 로씨야에 제재를 가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신문은 도이월란드가 원유와 가스의 3분의 1은 로씨야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럽동맹내 다른 나라들의 회사를 모두 합친것보다 더 많은 약 6200개의 도이월란드회사들이 로씨야에서 활약하고있다고 전하였다.

도이월란드의 한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로씨야에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경우 도이월란드의 경제성장률은 2% 줄어들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유럽국가들의 경제전

반에 심각한 경제침체를 초래할수 있다.

카타란 경제전반에 직면한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제재를 배척하는 태도를 취하고있다.

로씨야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미국경제를 더욱 위기속으로 몰아넣는 계기로 발전하고서 여론들은 평화하고있다.

이러한 때 까브로스에서 세계적인 천연가스매장지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미국에 전해졌다.

사막의 오아시스마냥 미당국자들은 급기야 이 나라에 달려가 추파를 던지며 온갖 간첩리설을 늘어놓고있다.

이번에 까브로스를 행각한 미국부대통령은 이 나라에서의 평화협상에 온 관심이 있는 듯이 너스레를 떨면서 황실수설하였다.

그는 오래동안 분열되어있던 이 나라를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나서서 하나로 《통일》시킨다고 하면서 어색하게 늘어놓았다. 지금껏 무관심하던 지중해의 자그마한 섬나라인 이 나라에 그토록 원심을 가지고 가깝게 접근하고있는 미국의 속심은 너무도 얄다.

저들의 침략적목적, 리익을 위해서는 오늘도 가깝게 지냈다

가도 캐일에 가서는 상대방을 가차없이 타고났는것이 미국이 라는것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있다.

남조선에서 지방자치제선거가 있었다

남조선 각계 단체들 성명 발표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 각계 단체들이 5월 24일 성명들을 발표하여 대결적인 《5.24조치》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16.15공동선언선한 남측위원회는 《5.24조치》가 취해진 때로부터 4년이 되었다고 하면서 《5.24조치》는 명분없는 대결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죄하였다.

이 조치는 남부사이의 대결을 심화시켜 남북경제협력기 가져올 리익을 침해하였고 남조선기업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비난하였다. 얼마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가

전문가 1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즉시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언급하고 이렇게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경우도 드물다고 지적하였다.

120여개 단체가 망라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는 성명에서 《5.24조치》는 동족대결을 추구한 리명박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산물이라고 단죄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중의 안전을 위해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명분없는 대결조치를 해제하라

남조선의 17개 주요 시, 도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시, 군, 구 《의회》의원들도, 시교육감독을 선출하는 지방자치제선거가 있었다.

이번 지방자치제 선거는 《새헌법》호환에 관한 민심의 분노와 그와 대한 피괴피괴당의 야수적탄압, 《북풍》조작 등으로 침체한 정세속에 진행되었다.

남조선의 17개 주요 시, 도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시, 군, 구 《의회》의원들도, 시교육감독을 선출하는 지방자치제선거가 있었다.

이번 지방자치제 선거는 《새헌법》호환에 관한 민심의 분노와 그와 대한 피괴피괴당의 야수적탄압, 《북풍》조작 등으로 침체한 정세속에 진행되었다.

남조선의 17개 주요 시, 도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시, 군, 구 《의회》의원들도, 시교육감독을 선출하는 지방자치제선거가 있었다.

이번 지방자치제 선거는 《새헌법》호환에 관한 민심의 분노와 그와 대한 피괴피괴당의 야수적탄압, 《북풍》조작 등으로 침체한 정세속에 진행되었다.

남조선의 17개 주요 시, 도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시, 군, 구 《의회》의원들도, 시교육감독을 선출하는 지방자치제선거가 있었다.

이번 지방자치제 선거는 《새헌법》호환에 관한 민심의 분노와 그와 대한 피괴피괴당의 야수적탄압, 《북풍》조작 등으로 침체한 정세속에 진행되었다.

남조선의 17개 주요 시, 도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시, 군, 구 《의회》의원들도, 시교육감독을 선출하는 지방자치제선거가 있었다.

이번 지방자치제 선거는 《새헌법》호환에 관한 민심의 분노와 그와 대한 피괴피괴당의 야수적탄압, 《북풍》조작 등으로 침체한 정세속에 진행되었다.

남조선의 17개 주요 시, 도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시, 군, 구 《의회》의원들도, 시교육감독을 선출하는 지방자치제선거가 있었다.

이번 지방자치제 선거는 《새헌법》호환에 관한 민심의 분노와 그와 대한 피괴피괴당의 야수적탄압, 《북풍》조작 등으로 침체한 정세속에 진행되었다.

남조선의 17개 주요 시, 도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시, 군, 구 《의회》의원들도, 시교육감독을 선출하는 지방자치제선거가 있었다.

이번 지방자치제 선거는 《새헌법》호환에 관한 민심의 분노와 그와 대한 피괴피괴당의 야수적탄압, 《북풍》조작 등으로 침체한 정세속에 진행되었다.

대세를 분간 못하는 피괴피괴당

남북관계에서는 《5.24조치》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고집불통으로 남아있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민중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군사건 미국의 간섭을 받고 눈치를 보는 그러한 정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현 《정부》가 언제까지 외세공조만을 고집하며 민족의 앞날을 망쳐먹는 골육충의 군사정권에 매달려있는가고 단죄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박근혜당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북핵폐기》만 말만 영부사처럼 주장대고 있어 민중의 눈총을 받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남북관계에서는 《5.24조치》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고집불통으로 남아있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민중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군사건 미국의 간섭을 받고 눈치를 보는 그러한 정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현 《정부》가 언제까지 외세공조만을 고집하며 민족의 앞날을 망쳐먹는 골육충의 군사정권에 매달려있는가고 단죄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박근혜당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북핵폐기》만 말만 영부사처럼 주장대고 있어 민중의 눈총을 받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남북관계에서는 《5.24조치》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고집불통으로 남아있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민중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군사건 미국의 간섭을 받고 눈치를 보는 그러한 정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현 《정부》가 언제까지 외세공조만을 고집하며 민족의 앞날을 망쳐먹는 골육충의 군사정권에 매달려있는가고 단죄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박근혜당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북핵폐기》만 말만 영부사처럼 주장대고 있어 민중의 눈총을 받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남북관계에서는 《5.24조치》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고집불통으로 남아있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민중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군사건 미국의 간섭을 받고 눈치를 보는 그러한 정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